

바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떠난 해녀 돌아오지 않아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17. 신창

등록 : 2006년 11월 19일 (일) 14:36:31
최종수정 : 2006년 11월 19일 (일) 14:36:31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백화현상... 등 떠미는 바다

“예전에는 물에 들어가면 몸이 몸이고 배 스크루고 여기저기 달라붙어서 귀찮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눈을 찌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도내 어촌계중 해안선이 가장 긴 편인 신창 바다는 벌써 수년째 백화현상으로 인한 생채기가 컸다.

한림 수협관내 어촌계 중에서 해조류가 가장 많이 수확되는 등 바다밭이 가장 비옥했었지만 4~5년전 부터 시작된 백화현상은 잠녀들을 계속해 물 밖으로 밀어냈다고 했다.

지난해 신창 어촌계에서 처리한 천초는 1만6625kg·1억700만원 상당에 이르지만 많게는 3만5000~4만kg나 수확했던 때와 비교해서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툇 역시 지난해 213kg(상품 기준)을 처리, 한림 관내 어촌계 중 최고를 기록했지만 예년에 비해 돈이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툇이나 천초 등은 좋은 가격에 일본에 수출, 효자품목으로 꼽혔었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중국산 원초가 대량으로 일본에 공급되고 있는데다 연화 하락 등으로 20년전 가격만큼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 천초가 현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위안이 되고 있다.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 외에도 '돈'이 되지 않자 툯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도 크게 줄었다.

강명산 신창어촌계장(44)은 "15~16년전부터 합리적 공동작업을 위해 바다를 크게 네 개 구역으로 나눴고, 툯작업은 어촌계원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며 "이제는 발일을 하는 것보다 돈이 안된다며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해조류만이 아니다. 물건이 많이 날 때는 뱃물질을 해야 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상군을 몇몇이 직접 물질을 할 뿐 배는 이용하지 않는다.

신창에는 육상양식장 등 어장 황폐화와 연관지을만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강 어촌계장은 "조류가 돌고 도는게 자연의 순리"라며 "바다 속을 조금만 훑어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다목장' 그리고...

한때 경북 구룡포나 대보·감포 등지까지 출가 물질을 하면서 삶을 이어온 신창 바다를 흔들거리게 한 일이 있었다. 4~5년전부터 추진된 바다목장 사업에 한경 지역이 선정되면서 큰 기대를 걸었었다.

지난해 기초조사연구용역이 완료됐지만 아직 이 곳 바다에는 인적이 뜸한 '관리 사무실'과 관리선 한 척이 건조된 것이 전부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예전 담당 직원들은 자리를 옮겼고 업무 등이 도로 이양되면서 관련 사업 역시 '다시 시작하는'분위기가 역력하다며 걱정을 감추지 않았다.

기초조사 용역 이후 3~5년은 있어야 활성화된다는 해양수산부의 발표도 못미더운 판에 최근 터진 바다목장 용역 비리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신창어촌계에서는 올해 전복종패 6200미와 갯돔 치어 20만미를 바다에 뿌렸다. 하지만 수확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하지 않았다.

오래된 인공어초가 부서지면서 기초가 됐던 철근이 드러나며 바다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원했던 투석대신 올해 다시 인공어초 60개를 바다에 던져넣었다.

전복 종패 역시 세부 적지 조사 등을 통해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 방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이 곳 주민들의 주장이다.

같은 바다목장 추진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바다가 곱지 않다'는 불멘소리와 달리 최근 방영중인 모 공중파 미니시리즈의 주요 배경은 이곳 신창 바다다.

좌창년 잠녀회장(66)은 "물질 일당 보다는 발일 일당이 훨씬 후한데다 겨울 작업이 쉽지 않아 점점 물질을 하는 수가 줄고 있다"며 "다양한 어촌계 사업이 추진되고 바다가 보다 비옥해지지 않는다면 다시 바다로 돌아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발로 밟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한경면 두모리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